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14.(수) 11:00 < 12.14.(수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14.(수)	
담당 부서	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문상민 (044-203-53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겸 (044-203-5326)
			사무관	박계영 (044-203-5325)

원전 강국 대한민국,
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힘차게 재도약!

- ① 겨울철 에너지 수급과 무역 안보에 기여 -
- ②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교두보 역할 수행 -
- ③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-

준공 기념행사 개요

□ 12월 14일(수)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·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**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**를 개최하였다.

<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개요 >

□ **일시/장소** : '22. 12. 14.(수) 11:00~12:00 / 신한울원전 부지

□ **참석자** : 지역주민, 정부, 주한대사단, 국회, 한수원, 원전기업, 지자체 등 500여명

□ **신한울 1호기 사업 개요**
- (위치)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, 고목리 일원
- (시설용량) 1,400MW급 x 2기
- (형식) 신형가압경수로 (APR1400)
- (건설기간) '10.4 ~ '22.12 (부지 정지 착수 ~ 1호기 준공)

○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, **차세대 한국형 원전(APR1400)이 적용된 발전소**이다.

□ 산업부는 **신한울 1호기**가 ①**에너지+무역 안보에 기여**, ②**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**, ③**원전 생태계 재도약**의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.

신한울 1호기 준공 의의

① 에너지+무역 안보에 기여

□ 산업부는 12월 7일부터 가동된 신한울 1호기가 **경상북도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**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**국민경제와 산업계를 뒷받침하는** 것은 물론, **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.6%p 상승**(11.7→13.3%)시켜 **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**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.

* (신한울#1 연간 예상발전량) 10,424GWh=1,400MWh(설비용량)×365일×24시간× 이용률(85%)
('21년 경북 전력소비량) 44,258GWh

□ 또한,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**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**하여, 에너지 연료 대부분(약 93%)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**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***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.

* 연간 △LNG 약 26억불(148만톤: '22.1~12.1일 JKM 가격 평균, 연간발전량 10.4TWh, LNG발전량 1TWh 당 LNG소비 14.2만톤) - △우라늄 약 0.45억불(연간소요량 29톤, '22년 도입가격 200만원/kgU, 환율 1,300원 기준) = 연간 25.5억불 순 수입대체 효과

②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

□ **차세대 한국형 원전**인 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**핵심기자재*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며,**

* △원자로 냉각재펌프(RCP), △원전 계측제어시스템(MMIS)

○ 향후 체코 등으로 **수출될 대표모델**로서, **"2030년까지 10기 원전수출"**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.

③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

□ 또한,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연계하여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**원전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**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❶ **신한울 3·4호기**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**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**하는 등 **'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**를 추진하고 있다.

❷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. **신한울 3·4호기 건설 일감**이 **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** 시작되는 것은 물론, **가동원전 일감**(설비투자, 발전기자재 등), **수출 일감** 등을 합해 **'23년 총 2조원 이상의 일감 공급**될 전망이다.

❸ 또한, 원전업계의 **경영애로 해소** 및 **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대출, 보증 등 금융지원, 원자력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&D 지원**에 **내년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자**될 계획이다.

❹ 아울러, 산업부는 **원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**하고, 원자력분야 시험·평가, 인증 등 **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**하는 등 **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도 조성**해나갈 계획이다.

행사 특이사항

□ 이번 준공 기념행사에서는 **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**와 **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**, **중소·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**도 진행되었다.

○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,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**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에게 은탑산업 훈장**이 수여되었으며,

○ 원전계측제어시스템(MMIS)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와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등 **총 12점*의 포상**이 수여되었다.

* 훈장(은탑 1), 포장(2), 대통령표창(4), 국무총리표창(5)

□ 또한, 준공 기념행사 종료 후 **산업부장관**,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**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하여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, 근무자들을 격려**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○ 특히,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신한울 1호기 원전을 둘러보며 **"원전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"**이라며, **안전한 원전 운영**이 **국민 신뢰도 제고**를 비롯해 나아가 **원전수출의 디딤돌**임을 강조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